KERI Vol. 28-2

2018년 2분기

www.keri.org

KERI 경제동향과 전망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keri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 28-2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8년 2분기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이 승 석　　부 연 구 위 원

감 수

송 원 근　　부　　원　　장
김 윤 경　　기업연구실 실장

〈차 례〉

요 약 ····· v

제Ⅰ장 최근 경제동향 ····· 1
1. 경제성장 ·····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8
3. 고용 ····· 13
4. 물가 ····· 15
5. 금리와 환율 ····· 18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 21
1. 대외 여건 ····· 23
2. 2018년 국내경제전망 ····· 29

〈표 차례〉

〈표 Ⅰ-1〉 주요 산업활동 지표 ····· 7
〈표 Ⅱ-1〉 세계 경제 전망 ····· 24
〈표 Ⅱ-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 26
〈표 Ⅱ-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 26
〈표 Ⅱ-4〉 환율 전망 ····· 27
〈표 Ⅱ-5〉 전망의 주요 전제 ····· 28
〈표 Ⅱ-6〉 2018년 국내경제전망 ····· 39

〈그림 차례〉

〈그림 Ⅰ-1〉 실질GDP 증가율 추이 ····· 3
〈그림 Ⅰ-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 ····· 4
〈그림 Ⅰ-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 6
〈그림 Ⅰ-4〉 경기종합지수 ····· 7
〈그림 Ⅰ-5〉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 8
〈그림 Ⅰ-6〉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 8
〈그림 Ⅰ-7〉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 9
〈그림 Ⅰ-8〉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 10
〈그림 Ⅰ-9〉 주요 품목 수출증가율 ····· 11
〈그림 Ⅰ-10〉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 12
〈그림 Ⅰ-11〉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 12
〈그림 Ⅰ-12〉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 13
〈그림 Ⅰ-13〉 고용률 ····· 14
〈그림 Ⅰ-14〉 산업별 취업자 증감(2017.1~3 →2018.1~3) ····· 15
〈그림 Ⅰ-15〉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16
〈그림 Ⅰ-16〉 품목성질별 증가율 ····· 16
〈그림 Ⅰ-17〉 아파트매매가격 ····· 17
〈그림 Ⅰ-18〉 아파트전세가격 ····· 17
〈그림 Ⅰ-19〉 한 · 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 18
〈그림 Ⅰ-20〉 원/달러, 원/100엔 ····· 19
〈그림 Ⅱ-1〉 국제유가 추이 ····· 25
〈그림 Ⅱ-2〉 달러 인덱스 ····· 27
〈그림 Ⅱ-3〉 위안/달러 환율 ····· 27
〈그림 Ⅱ-4〉 엔/달러 환율 ····· 28
〈그림 Ⅱ-5〉 달러/유로 환율 ····· 28
〈그림 Ⅱ-6〉 소비자심리 지수 ····· 29
〈그림 Ⅱ-7〉 최근 가계 소득 현황 ····· 30
〈그림 Ⅱ-8〉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 30
〈그림 Ⅱ-9〉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 31
〈그림 Ⅱ-10〉 BSI(업황 및 설비투자) ····· 31
〈그림 Ⅱ-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 32
〈그림 Ⅱ-12〉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 34

〈그림 Ⅱ-13〉 상품, 서비스, 음식점및숙박 물가상승률 ····· 35
〈그림 Ⅱ-14〉 전세가격, 임금총액 ····· 36
〈그림 Ⅱ-15〉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 36
〈그림 Ⅱ-16〉 주요 투자은행의 한국 기준금리 전망 ····· 37
〈그림 Ⅱ-17〉 원/달러, 달러 인덱스 ····· 38
〈그림 Ⅱ-18〉 외국인 주식 순매수 ····· 38

요 약

2018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3% 감소한 2.8%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 및 설비투자의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등 투자여건 악화의 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는 3.0%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더구나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기착공물량의 준공으로 빠른 전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SOC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0.1%까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부문도 소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확대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가능성, 국제무역 갈등 고조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중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 수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소득지원 확대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7% 증가율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다만, 거시지표의 점진적 둔화, 기준금리 인상, 유가상승 등은 민간소비의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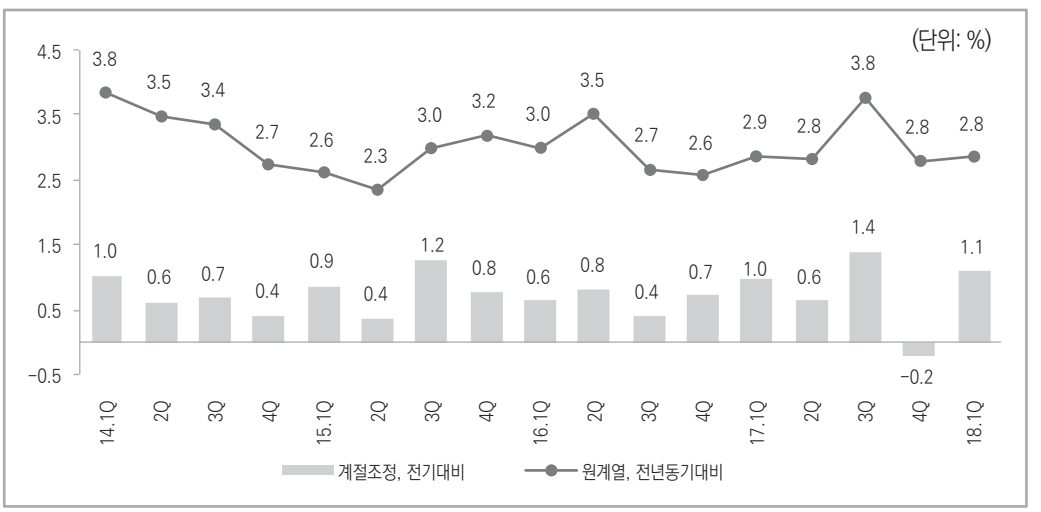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고용
4. 물가
5. 금리와 환율

1. 경제성장

□ 2018년 1/4분기 국내총생산(실질GDP) 전기대비 1.1%, 전년동기비 2.8% 증가

o 전기대비 성장률이 1% 수준을 회복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한 2.8%를 기록
- 전기비 : -0.2%(2017. 4/4) → 1.1%(2018. 1/4)
- 전년동기비 : 2.9%(2017. 1/4) → 2.8%(2018. 1/4)

〈그림 I -1〉 실질GDP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최종수요) 투자의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민간+정부)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유지

o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 지속과 비영리단체의 지출증가에 힘입어 전기비 0.6%(전년동기비 3.4%) 증가

o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설을 중심으로 공사실적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전기대비 2.8% 성장에 그침

o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에 대한 조정압력으로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한 자릿수 성장(전년동기비 9.2%)으로 내려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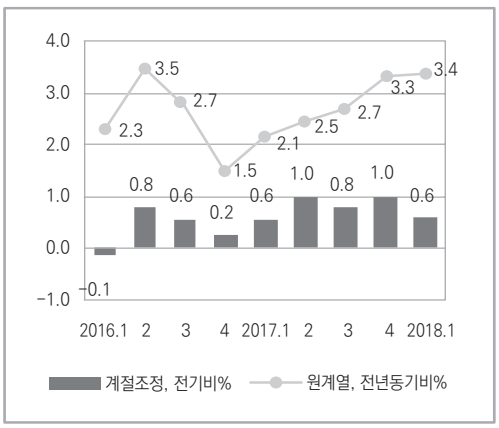
o 지식생산물투자는 지난 분기 5.0% 성장에 비해 둔화된 3.3%(전기비 0.2%) 성장

o 지난 분기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큰 폭 감소(-0.4%)를 보였던 수출은 기계류와 화학제품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6%(전기비 4.4%)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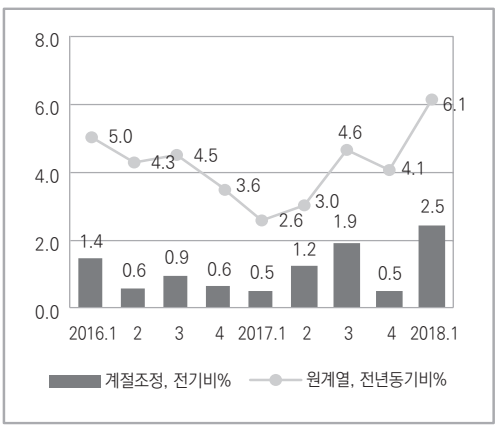
〈그림 Ⅰ-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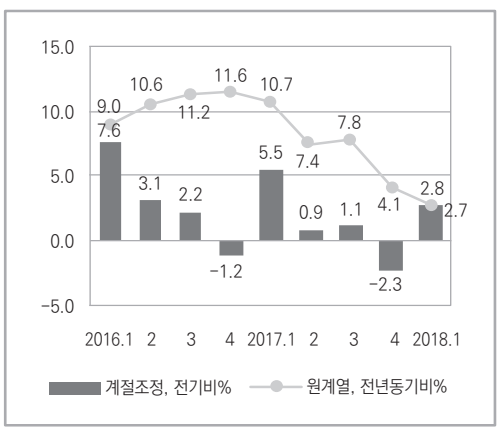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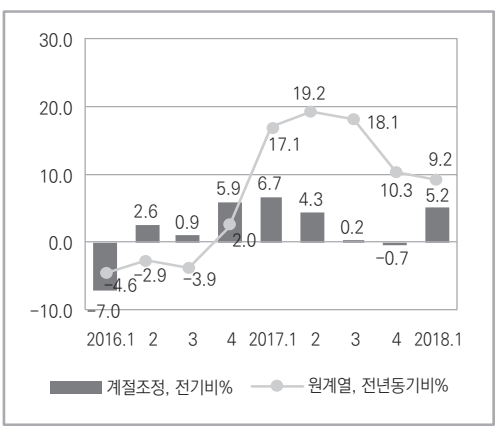
정부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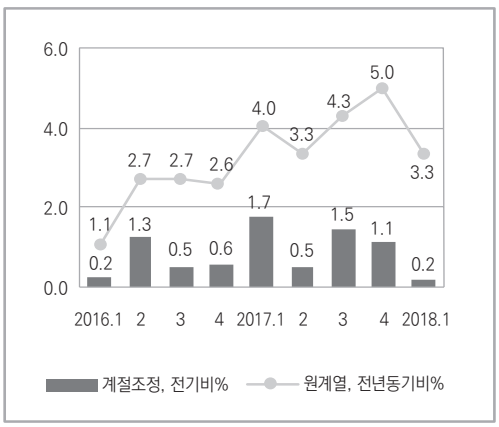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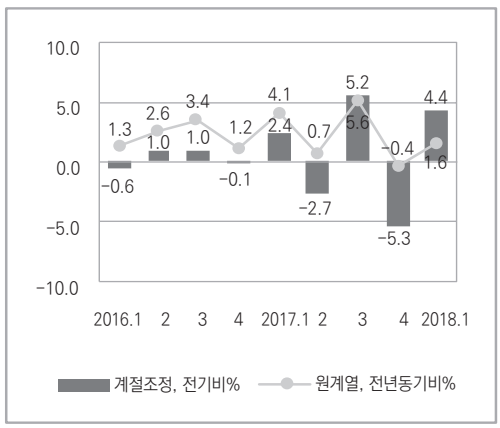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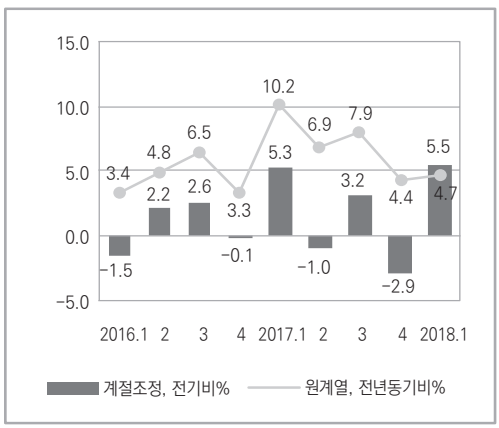
지식생산물투자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재화+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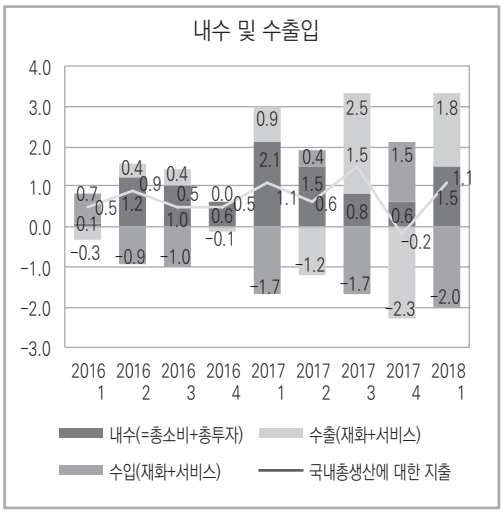
□ (기여도) 내수부문(총소비+총투자)과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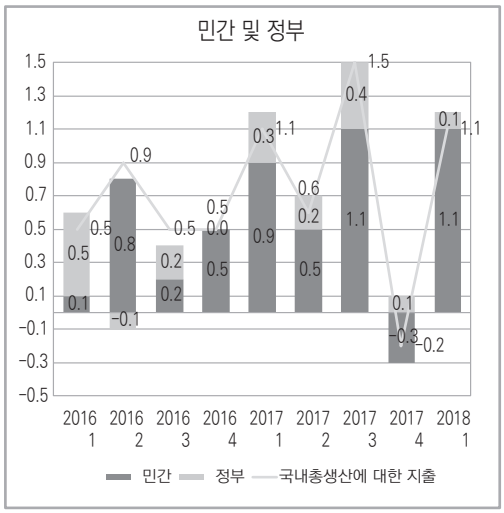
o 내수(총소비+총투자): 0.6%p(2017. 4/4) → 1.5%p(2018. 1/4)
  * 총소비: 0.6%p(2017. 4/4) → 0.7%p(2018. 1/4)
  * 총투자: 0.0%p(2017. 4/4) → 0.8%p(2018. 1/4)
  - 순수출: -0.8%p(2017. 4/4) → -0.2%p(2018. 1/4)

o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1.1%p로 지난 분기(-0.3%)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정부부문 기여도는 0.1%p로 지난 분기와 동일

〈그림 Ⅰ-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비, %p)





자료: 한국은행

□ 1/4분기 중 생산·투자의 성장세가 제조업과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소매판매도 기간 전체적으로는 내구재 판매 증가에 힘입어 증가했으나 기간을 경과하며 위축해가는 모습

o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다소 늘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의 위축으로 전체적으로는 1% 감소
  - 산업생산: 0.6%(1/4) → -1.0%(3월) (제조업: -3.0%(1/4) → -4.7%(3월))

o (소비) 승용차, 스마트폰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어 5.0% 성장[1)]
  - 소매판매: 5.0%(1/4) → 7.0%(3월)

o (투자) 지난해 성장을 견인해 온 투자는 1/4분기를 경과하며 급격히 위축하는 모습
  - 설비투자: 9.2%(1/4) → -0.2%(3월)
  - 건설투자: 1.4%(1/4) → -6.3%(3월)

1) 다만, 4월 들어 전문소매점(-1.6%), 대형마트(-2.2%), 백화점(-1.1%), 슈퍼마켓 및 잡화점(-0.7%) 등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반락(전년동월비 5.3%, 전월비 -1.0%)하는 모습

o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4분기 중 추세적 하락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말 이후 보합세를 보이는 모습

〈표 I -1〉 주요 산업활동 지표

(단위: yoy %, %)

		2017년			2018년			
		연간p)	1/4	3월p)	1/4p)	1월p)	2월p)	3월p)
생산	전산업	2.3	3.9	4.2	0.6	4.2	-1.2	-1.0
	제조업	1.6	4.8	5.0	-3.0	3.5	-7.8	-4.7
	서비스업	1.9	2.2	2.1	2.6	3.4	1.9	2.3
	평균가동률	72.6	73.5	73.4	71.0	70.6	72.1	70.3
소비	소매판매	1.9	1.6	1.0	5.0	1.6	6.6	7.0
투자	설비투자	14.1	18.2	23.6	9.2	21.5	9.4	-0.2
	건설기성	10.1	17.7	18.4	1.4	14.4	-1.2	-6.3

자료: 통계청

〈그림 I -4〉 경기종합지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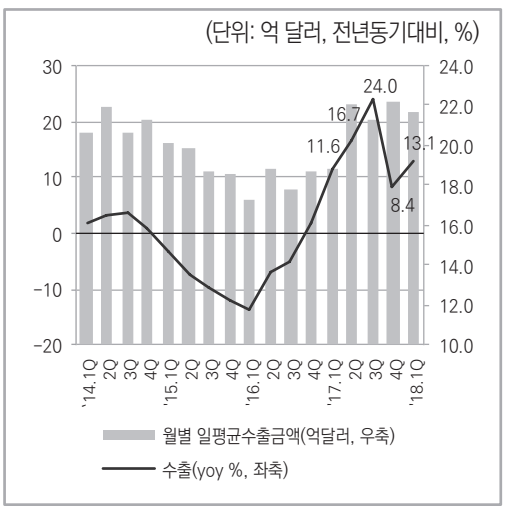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수출(통관기준)은 1/4분기 중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

o 수출은 반도체 가격과 물량의 동반상승세에 힘입어 13.1% 성장을 기록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 11.6('17. 1/4) → 16.7('17. 2/4) → 24.0('17. 3/4) → 8.4('17. 4/4) → 13.1('18.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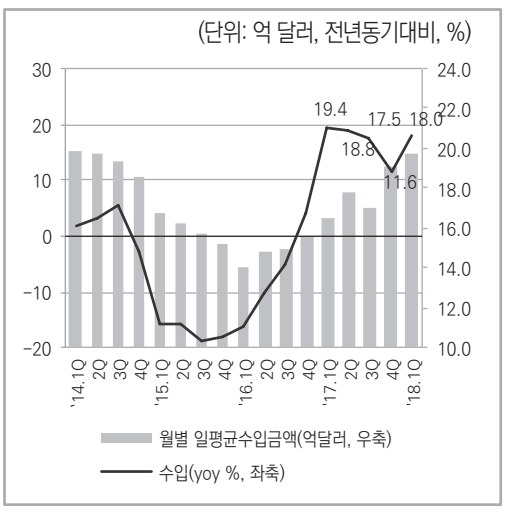
o 수입은 소비재와 자본재의 증가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 유지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 19.4('17. 1/4) → 18.8('17. 2/4) → 17.5('17. 3/4) → 11.6('17. 4/4) → 18.0('18. 1/4)

〈그림 Ⅰ-5〉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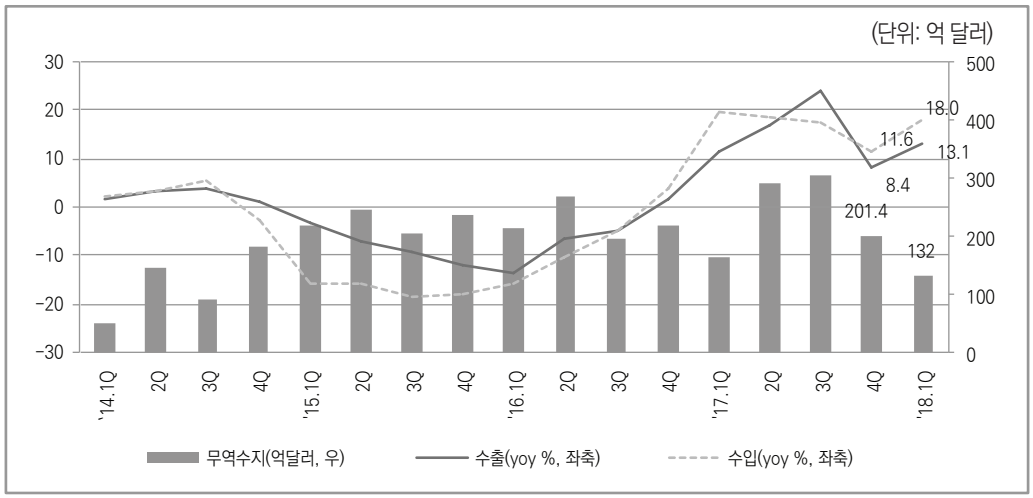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그림 Ⅰ-6〉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그림 Ⅰ-7〉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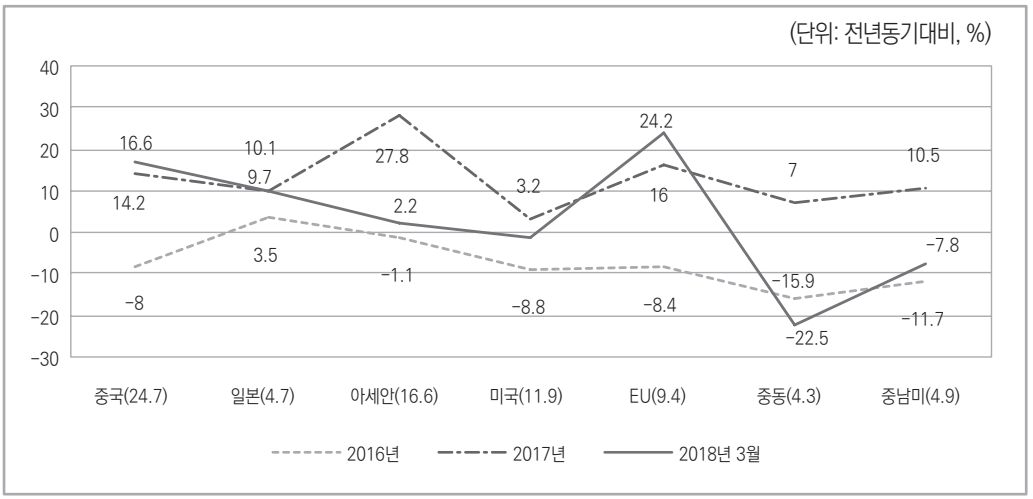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o (지역별 수출) 중국, 일본, EU에 대한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對미국 수출은 감소

- 미국: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에 대한 수출이 부진을 보이며 -1.0%로 반락
- EU: 경기호조세 지속과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 등으로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 등의 수출이 증가
- 일본: 유가상승에 힘입어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 중국: 중국정부의 IT 지원정책에 따라 반도체·컴퓨터를 중심으로 수출증가세 유지
- 아세안: 현지 진출 국내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품과 일반기계 등에 대한 수출의 호조로 증가세 유지

〈그림 Ⅰ-8〉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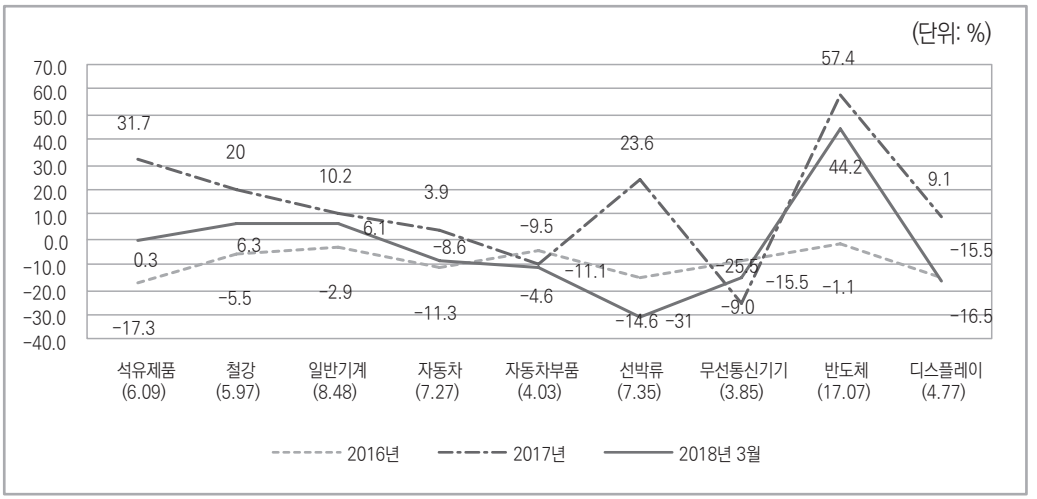


주: ( )내 수치는 2017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o (품목별 수출) 전반적으로 IT 경기와 주요국 경기호조로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 등은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은 경쟁심화와 해외생산 확대로 감소
  - 반도체: 서버용 D램 수요 강세지속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시장 성장으로 50%에 가까운 증가세 지속
  - 일반기계: 기저효과에도 불구, 주요국의 경기회복과 아세안의 인프라 투자확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
  - 철강: 글로벌 수입규제 확산 및 중국의 철강수요 증가에 따른 단가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
  - 자동차 부품: 현지 완성차 판매 부진에 따른 현지 공장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부진 확대
  - 석유제품: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증가세 유지

〈그림 Ⅰ-9〉 주요 품목 수출증가율



주: ( )내 수치는 2017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 1/4분기 경상수지 흑자, 118억 달러 흑자 (2017년 동기대비 76억 달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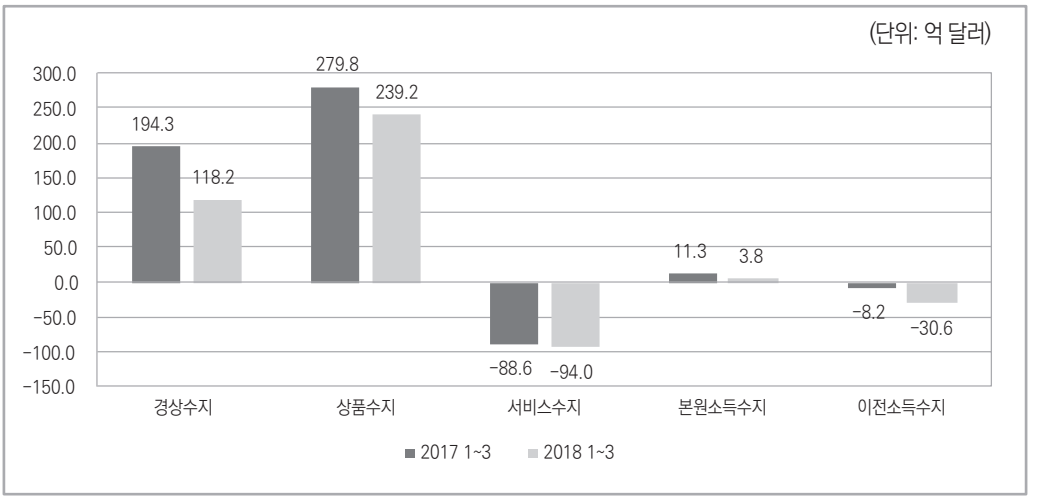
o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큰 폭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감소

-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여 104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더 큰 폭인 138억 달러 증가하며 상품수지 흑자는 34억 달러 감소
- 서비스수지 적자는 94억 달러로 전년도(88억 달러)대비 약 6억 달러 증가

* 운송수지 및 여행수지의 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적자폭은 1/4분기를 경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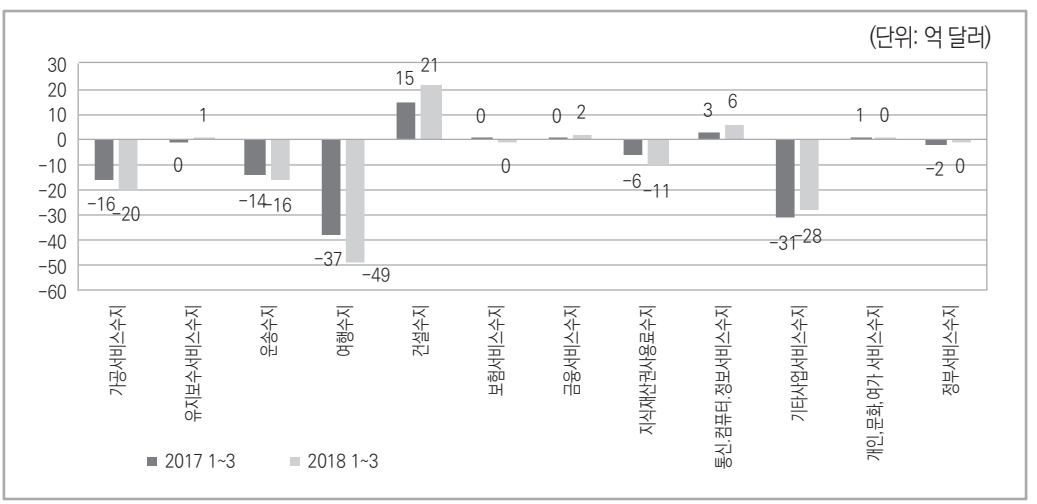
- 본원소득수지는 주식 배당지급이 증가에 기인하며 흑자폭 감소
- 이전소득 적자는 22억 달러 증가한 30.6억 달러 기록

〈그림 Ⅰ -10〉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Ⅰ -11〉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자료: 한국은행

3.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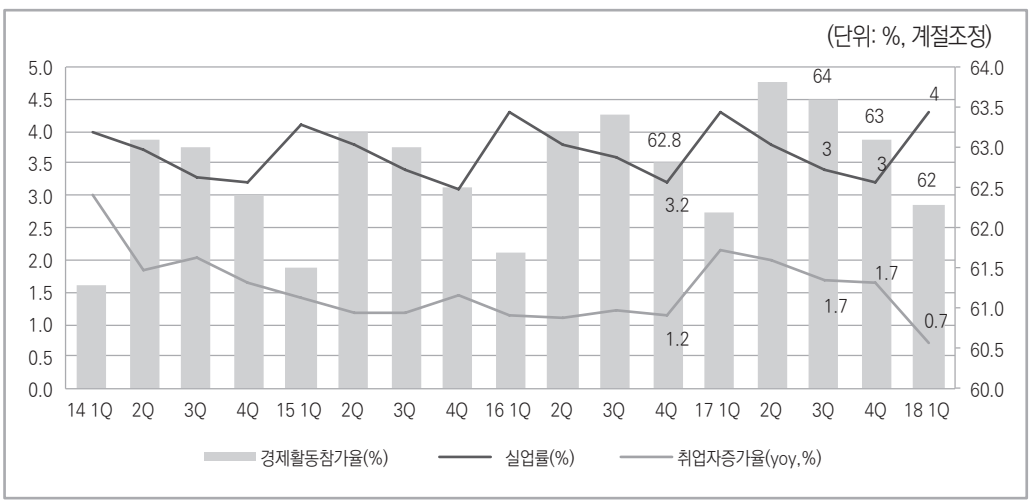
□ 고용시장, 취업자 2018년 3월 기준 2,655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만 2천 명 증가에 그치며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

o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1%에서 60%로 1.0%p 하락
- 고용률(%) : 61.4('17.10) → 61.4('17.11) → 60.4('17.12) → 59.5('18.01) → 59.2 ('18.02) → 60.2('18.03)

o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2017년 말까지 3% 수준을 보여 오던 실업률은 2018년 1/4분기 들어 4%로 상승
- 실업률(%) : 3.2('17.10) → 3.1('17.11) → 3.3('17.12) → 3.7('18.01) → 4.6('18.02) → 4.5('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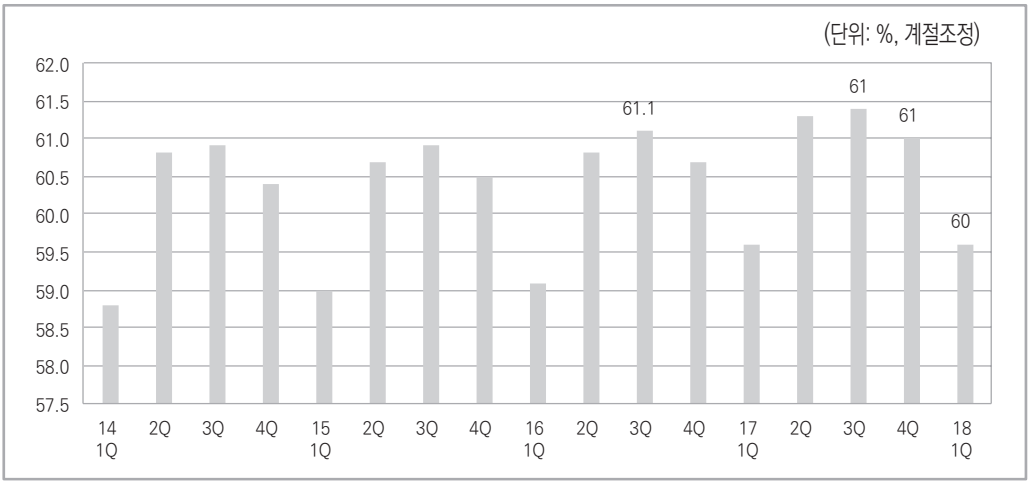
o 특히, 취업자증감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3월(11만 2천) → 4월(12만 3천) → 5월(7만 2천)) 수준에 머물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

〈그림 I -12〉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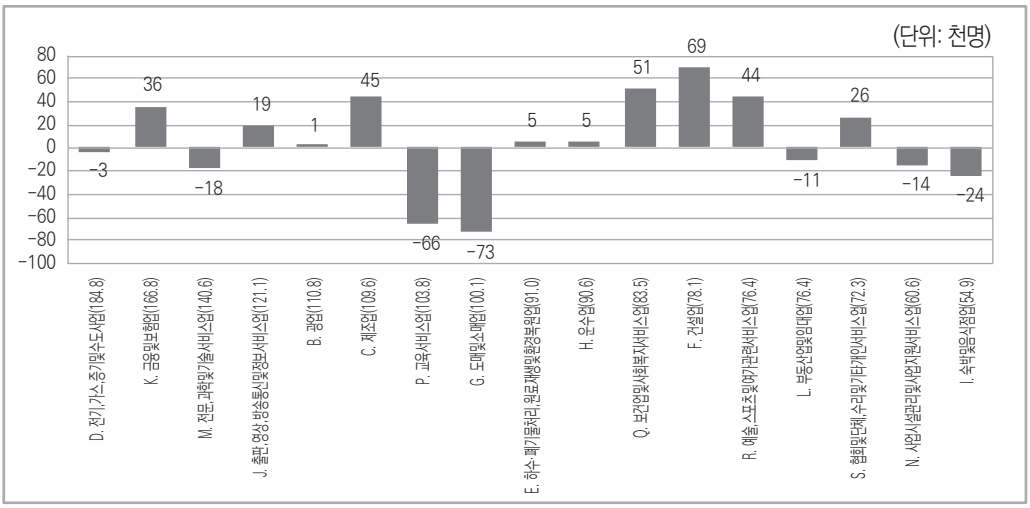
〈그림 Ⅰ-13〉 고용률



자료: 한국은행

o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건설업(6만 9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만 천명), 제조업(4만 5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도매 및 소매업(▽7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6만 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4천명) 등에서는 감소

〈그림 I -14〉 산업별 취업자 증감(2017.1~3 →2018.1~3)



주: ( )내 수치는 2017년 산업별 임금수준(전산업 평균=100)

자료: 한국은행

o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증가(2.3%)하였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9%, -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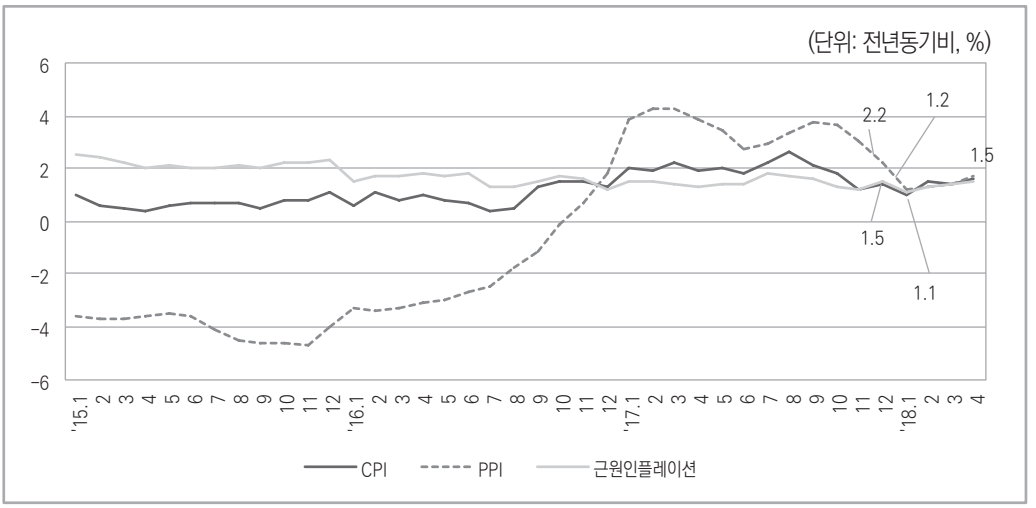
4. 물가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현재까지 1.5% 수준 유지

o 지출목적별로는 음식 및 숙박(2.5% 상승),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9% 상승) 이외 큰 변동 없음

o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소비자물가 대비 0.3%p 낮은 1.2%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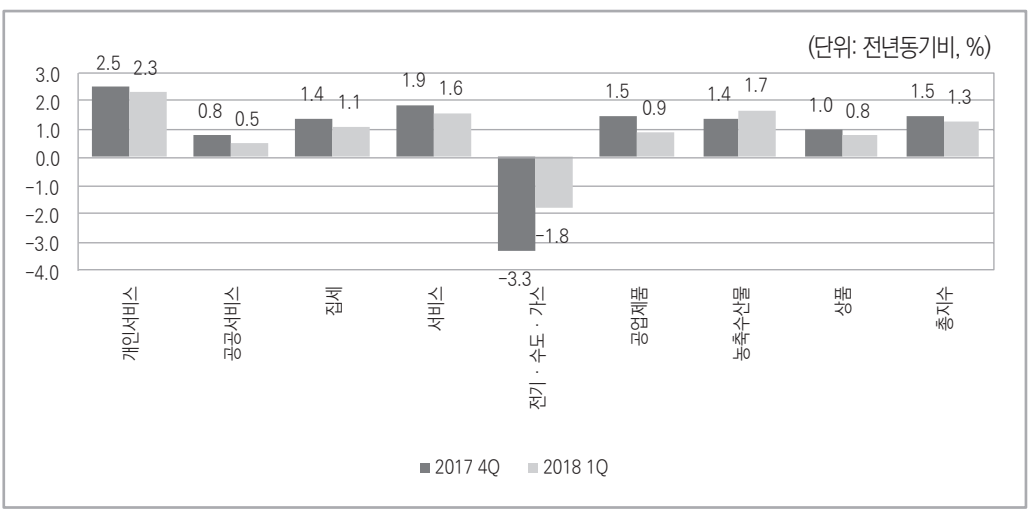
〈그림 Ⅰ-15〉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o 품목성질별로는 서비스 부문 중 개인서비스(외식포함)가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여타 품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평균을 하회하는 모습

〈그림 Ⅰ-16〉 품목성질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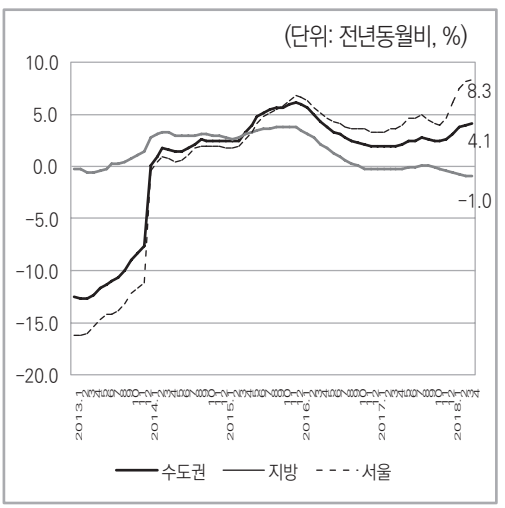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해 4/4분기까지 전국적으로 둔화되었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1/4분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 하락세 지속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 심화. 전세가격은 하락 추세 지속

o 아파트(수도권) 매매가격 증가율: 1.9%('17. 1/4) → 2.2%('17. 2/4) → 2.6%('17. 3/4) → 2.5%('17. 4/4) → 3.7%('18. 1/4)
-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는 8.2대책 이후 규제강화로 수요보다는 공급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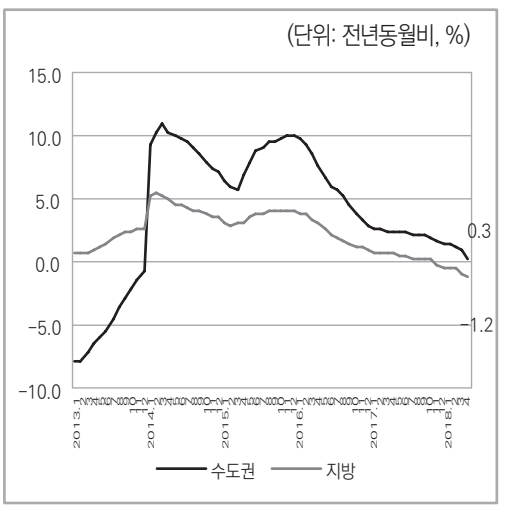
o 아파트(수도권) 전세가격 증가율: 2.5%('17. 1/4) → 2.3%('17. 2/4) → 2.1%('17. 3/4) → 1.7%('17. 4/4) → 1.1%('18. 1/4)

〈그림 Ⅰ-17〉 아파트매매가격



자료: 통계청

〈그림 Ⅰ-18〉 아파트전세가격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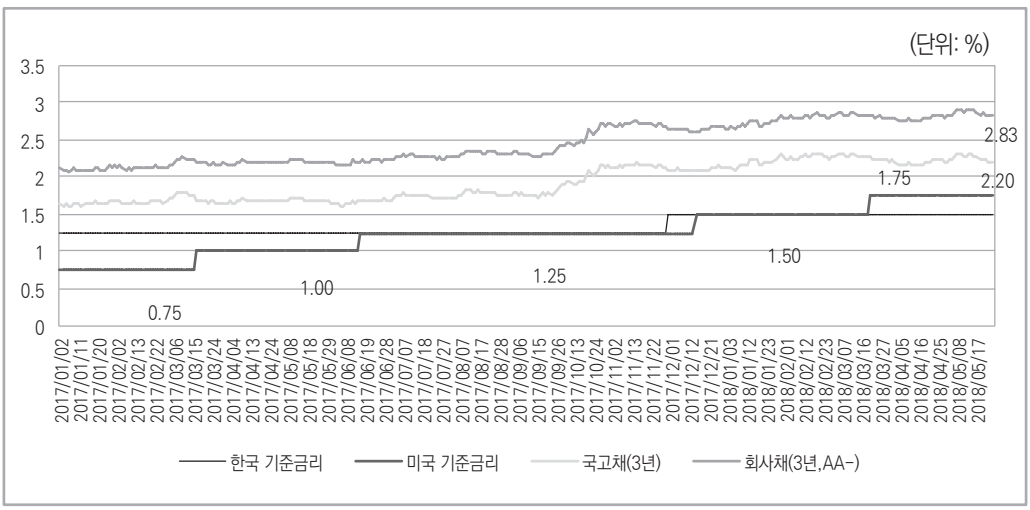
5. 금리와 환율

□ 지난해 11월 말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시중금리는 올 2월 이후 2.8% 수준을 유지. 다만, 6월 중 美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추가인상함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압력이 가중

o 회사채(3년, AA-) : 2.17%('16.12.15) → 2.20%('17.3.16) → 2.21%('17.6.15) → 2.47%('17.10.16) → 2.65%('17.12.8) → 2.84%('18.2.19) → 2.83%('18.5.28)

* 올 3월 미국 기준금리가 1.75% 수준으로 인상(한국 기준금리 1.50%) 이후 금리역전 현상 지속되고 있으나 양호한 대외건전성에 힘입어 금리역전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그림 Ⅰ-19〉 한 · 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자료: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환율은 1,080원 수준까지 오르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역마찰 심화가능성,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이 감소가능성이 대두되면서 1,070원 수준까지 하락하며 원화가치 다시 상승

o 다만, 6월 중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수준으로 상승

〈그림 Ⅰ-20〉 원/달러, 원/100엔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⑴ 세계경제 성장
⑵ 국제 유가
⑶ 주요국 환율
2. 2018년 국내경제전망
⑴ 경제성장
⑵ 경상수지
⑶ 물가
⑷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 선진국과 신흥국의 고른 성장, 교역규모 회복에 힘입어 양호한 경기확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IMF는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9%로 유지)

o (미국)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관련 하방압력은 다소 높아지겠으나 양호한 소비와 투자 그리고 고용시장 여건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o (유로지역) 양호한 고용여건 속에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유로화 강세지속으로 인한 수출호조 약화 등의 하방요인으로 성장세에 제한이 있을 전망

o (일본) 엔화강세 지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도 소폭 둔화되면서 1% 초반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o (중국) 공급과잉 부문의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증가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실적치	2018. 4월 현재 전망치		2018. 1월 전망치와 비교(%p)	
	2017	2018	2019	2018	2019
세계	**3.7**	**3.9**	**3.9**	**0.0**	**0.0**
선진국	2.3	2.5	2.2	0.2	0.0
미국	2.3	2.9	2.7	0.2	0.2
영국	1.7	1.6	1.5	0.1	0.0
유로존	2.4	2.4	2.0	0.2	0.0
일본	1.8	1.2	0.9	0.0	0.0
신흥개도국	4.7	4.9	5.1	0.0	0.1
중국	6.8	6.6	6.4	0.0	0.0
인도	6.7	7.4	7.8	0.0	0.0
브라질	1.1	2.3	2.5	0.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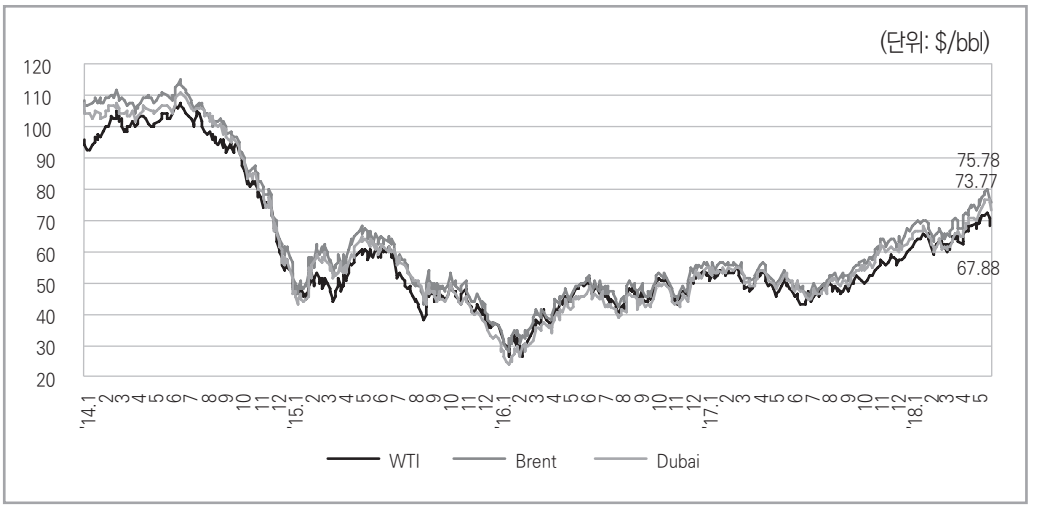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 2018)

(2) 국제 유가

□ 지난해 말부터 OPEC의 감산기간 연장, 원유수요 증대, 약달러 기조의 영향으로 60달러 선을 넘으며 상승세를 지속해 온 유가는 올 1/4분기 중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70달러 중반까지 큰 폭으로 상승

o Dubai유 가격: 56.41('17. 10/31) → 60.70('17. 12/18) → 60.28('18. 3/8) → 75.78('18. 5/23)

〈그림 Ⅱ-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전망) 주요국 및 신흥국의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수요증가와 중동지역 정세불안으로 유가상승세는 한동안 지속하게 될 전망. 다만,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의 지속적 증대는 여전히 유가상승에 대한 제한 요인

o (수요공급) 미국 등 비OPEC 국가들의 증산, OPEC의 감산결속력 약화가 공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원유수요 증가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중동지역 정세불안으로 유가는 대세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o (투기요인) 유가의 급상승에 따른 원유투기 심리의 고조는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bbl/d)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평균	평균
수요	98.50	99.50	99.65	100.82	100.80	100.20	101.92
공급	97.95	98.93	100.39	101.39	101.72	100.62	102.26
OPEC 공급(원유)*	32.44	38.8	39.2	39.7	39.3	39.44	39.89
비OPEC 공급	58.67	59.68	61.12	61.81	62.08	61.18	62.37
재고변동(공급-수요)	0.55	0.57	-0.74	-0.57	-0.93	-0.42	-0.34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유종	2017 평균	2018					2019
			1Q	2Q	3Q	4Q	평균	평균
EIA (2018.3)	WTI	50.8	62.9	67.6	66.9	64.9	65.6	60.9
EIA (2018.3)	Brent	54.2	66.8	73.1	72.0	70.7	70.7	66.0

주: EIA(美 에너지정보청)

자료: EIA

(3) 주요국 환율

□ (주요국 환율) 향후 달러 제한적 강세, 유로화 제한적 강세, 위안화 제한적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전망

o (미달러) 약세를 지속해오던 달러화는 실물지표 개선,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가속화에 따라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은 제한요인으로 작용

o (유로) 유로지역 경제지표 호조 및 교역량 증가 지속으로 당분간 강세 흐름 유지

o (중국위안) 안정적 성장과 중국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강세를 보이겠으나 부동산 규제정책 추진과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등이 강세 폭을 제한

o (일본엔) 최근 내수와 수출이 부진해지고 선행지표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엔화 약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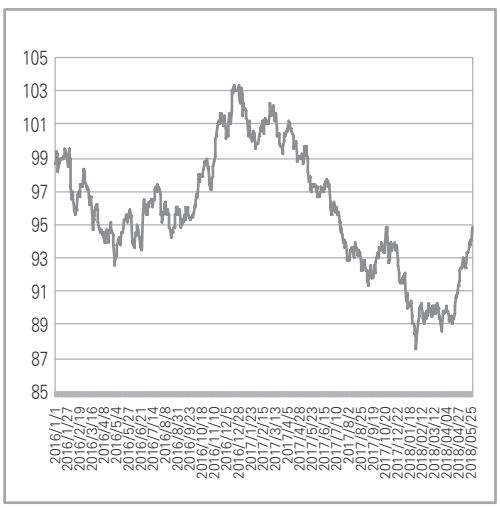
〈표 II-4〉 환율 전망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위안/달러	6.3160	6.3125	6.3163	6.3488
엔/달러	110.20	108.88	107.13	107.22
달러/유로	1.1900	1.2088	1.2463	1.2567

주: JP모건 외 14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값 참조, 2018.6.4.기준

참조: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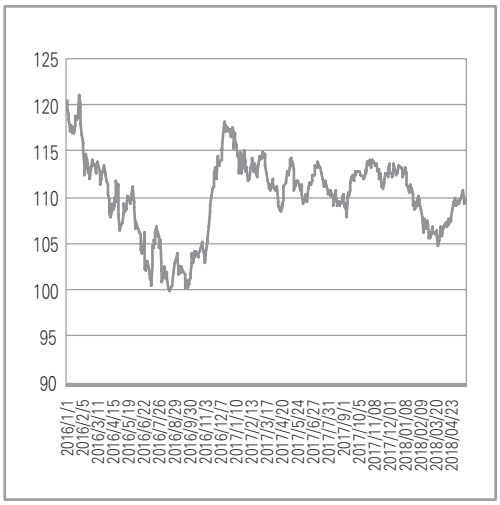
〈그림 II-2〉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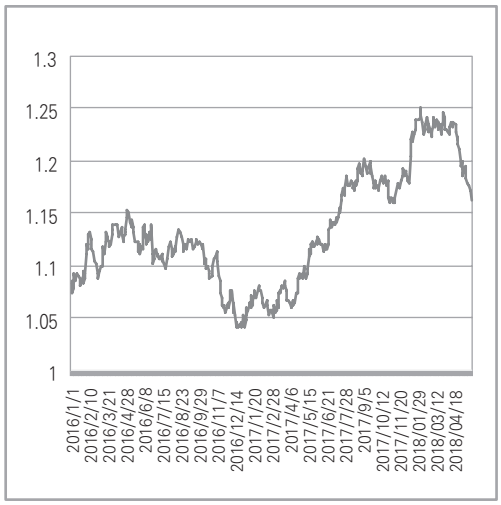
〈그림 II-3〉 위안/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그림 Ⅱ-4〉 엔/달러 환율



〈그림 Ⅱ-5〉 달러/유로 환율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Ⅱ-5〉 전망의 주요 전제

	2017년	2018년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3.7%	3.9%	3.9%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2.9	$70.3	$65.5

2. 2018년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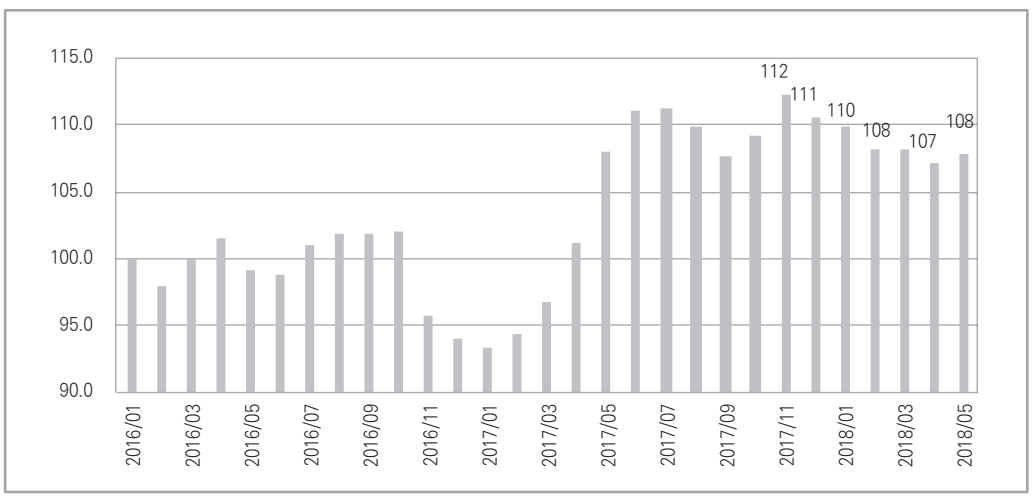
□ 민간소비: 2017년 2.6% → 2018년 2.7%(상반 3.0%, 하반 2.5%)

o 경기지표 개선으로 인한 낙관적 소비심리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o 정부의 소득기반 강화정책은 실질구매력 향상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나 단기적으로는 미약하나마 소비심리 진작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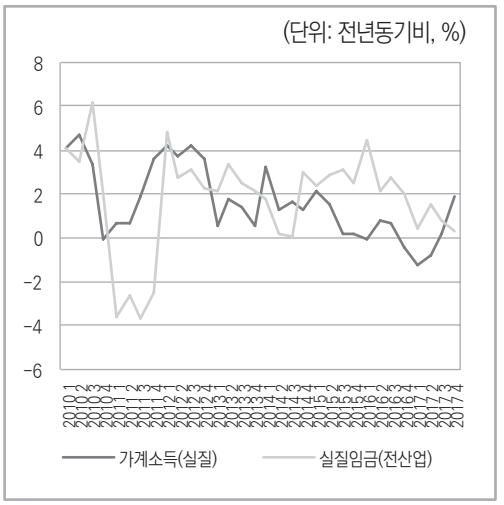
o 다만, 성장률 저하, 고용상황 악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반으로 갈수록 소비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

〈그림 Ⅱ-6〉 소비자심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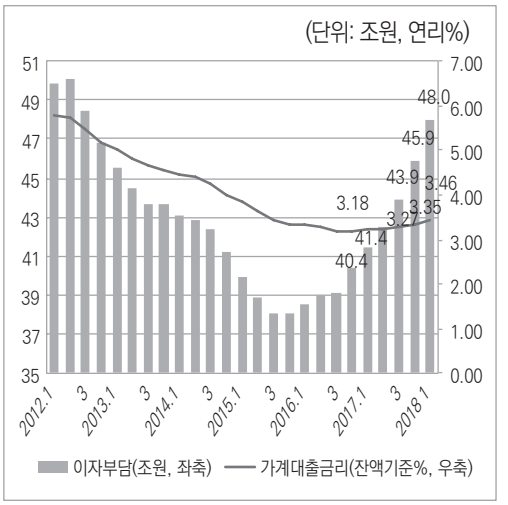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II-7〉 최근 가계 소득 현황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8〉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2017년 14.6% → 2018년 3.0%(상반 5.0%, 하반 1.0%)

o 2017년 중 수출호조와 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수요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둔화될 전망

o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해 왔던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둔화는 하반기를 경과하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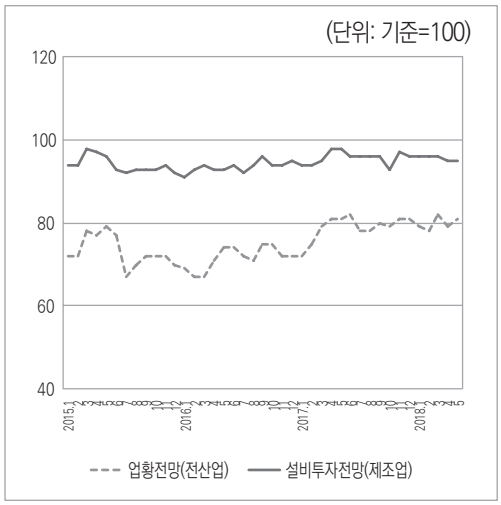
o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 상승과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바뀐 조세·재정정책 역시 설비투자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o 다만, 4차 산업혁명 기반 확충을 위한 IT관련 제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예상을 소폭 웃도는 실적을 기대

〈그림 Ⅱ-9〉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자료: 통계청

〈그림 Ⅱ-10〉 BSI(업황 및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 건설투자: 2017년 7.5% → 2018년 -0.1%(상반 1.4%, 하반 -1.5%)

o 건설투자는 건축부문과 토목부문 모두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향후 큰 폭으로 위축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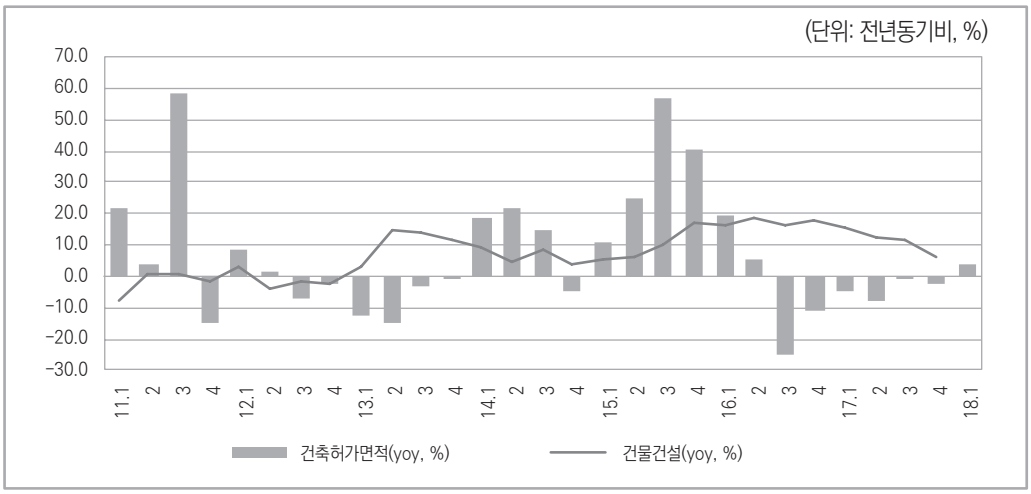
o 건축부문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규제로 추가적인 착공물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기착공 물량은 준공으로 전환되면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

-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인한 주택거래량 축소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 대한 추가적인 착공물량 감소가 가시화된 상황
- 비주거용 건물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에 따른 공업용 건물 건설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불가피 다만,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확대

* 다만,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확대는 증가 요인으로 작용

o 토목부문도 정부의 SOC예산 축소 편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그림 Ⅱ-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실질수출: 2017년 2.0% → 2018년 1.9%(상반 2.0%, 하반 1.9%)

o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견조한 교역량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o IT 경기호조의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 수출물량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o 다만,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가능성으로 금액기준으로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미·중무역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둔화폭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

□ GDP 성장률: 2017년 3.1% → 2018년 2.8%(상반 2.9%, 하반 2.7%)

o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하반으로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민간소비 및 투자의 둔화 그리고 경제정책의 경기부양 여력 약화에 기인하여 2.8% 성장에 그칠 전망

- 통화정책: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 중이고,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당초 예상보다 가속화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하반기 중 1~2차례 인상될 가능성
- 환율정책: 수출호조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화 절하의 제약이 존재
- 재정정책의 경우, 경제분야 예산의 큰 폭 축소로 인해 재정정책의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다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정책 등이 소비여력을 향상시켜 경제분야 예산 축소로 인한 효과를 단기적으로나마 상쇄시켜 줄 것으로 기대

o 다음과 같은 불안요인들의 향후 성장률 전망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내부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급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주택경기 급랭,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노동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 대외적 리스크로는 주요 수출품목의 교역조건 악화, 미국의 추가적인 무역제재 강도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 가능성,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가능성 등이 예상됨
- 지정학적 긴장완화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요인이나 이미 둔화세로 진입한 경기에 반등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

(2)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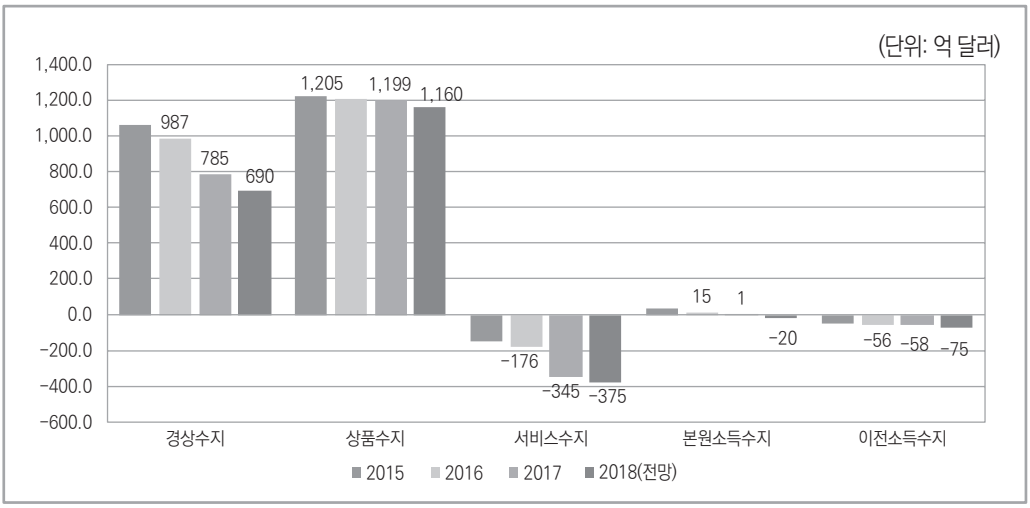
□ 경상수지: 2017년 785억 달러 흑자 → 2018년 690억 달러 흑자

o 수출호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단가하락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도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7년 785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69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 수출증가율이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가격 상승 둔화로 다소 하락하겠으며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지의 흑자규모가 소폭 줄게 될 전망

* 상품수출은 수출단가 상승세 약화, 기저효과(2017년 높은 물량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전망
*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소비재의 수입증가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운송수지 등 주요부문 수지 악화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수지 부진이 이어지고 본원·이전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

〈그림 II-12〉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자료: 한국은행

(3)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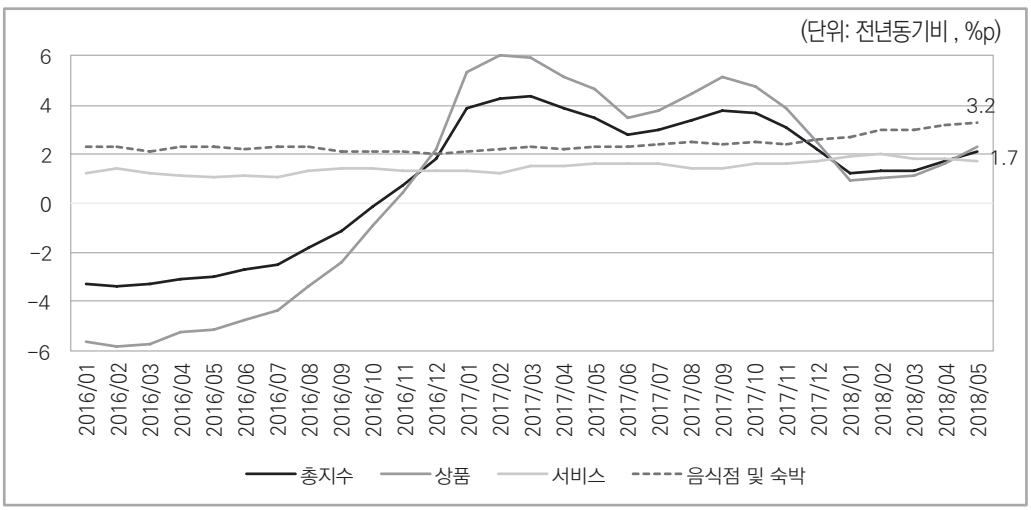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2017년 1.9% → 2018년 1.7%

o 최저임금 큰 폭 상승과 유가상승이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전반적인 성장세 약화로 실질적인 물가상승은 1.7% 수준에 그칠 전망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상승은 불가피하나 가계부채, 고령화 등 소비부진의 구조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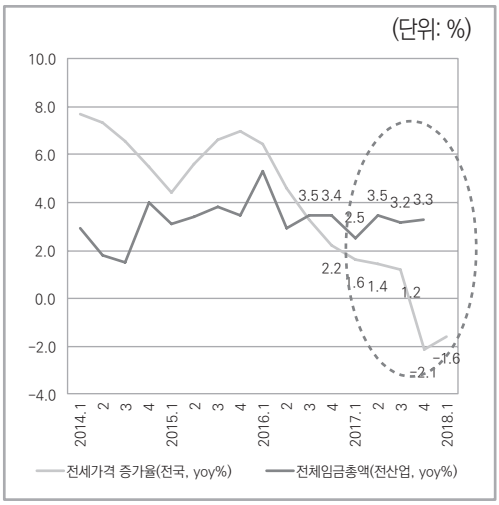
-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약 2.8~2.9%로 추정) 수준에 머물 전망이어서 수요압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
- 최근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5달러 수준까지 올랐으나 상반기를 경과하며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원화강세 현상의 지속으로 원자재 등 수입물가 상승폭도 제한적일 전망

〈그림Ⅱ-13〉 상품, 서비스, 음식점및숙박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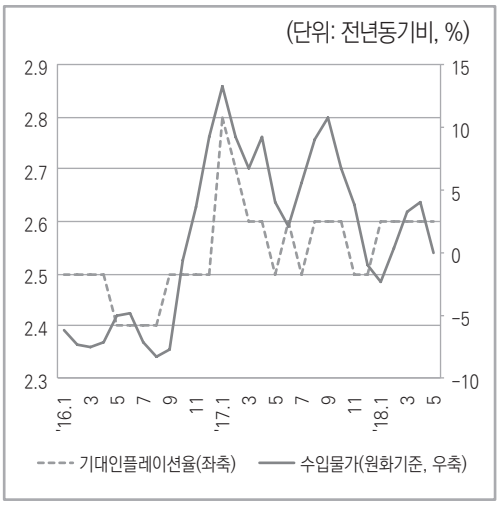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II-14〉 전세가격, 임금총액



〈그림 II-15〉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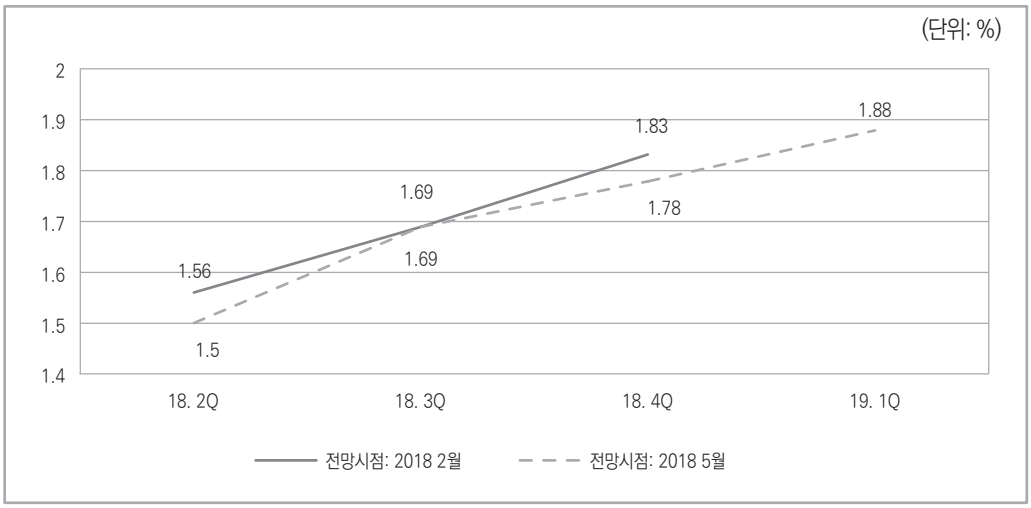
(4)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 회사채수익률(3년, AA-): 2017년 2.3% → 2018년 2.9%

o 지난해 말 한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완만히 상승해 오던 금리는 올 2월을 경과하며 2.8% 수준을 유지

- 회사채 수익률(3년만기, AA-) : 2.3%(2017. 3/4) → 2.6%(2017. 4/4) → 2.68%(2018. 2월) → 2.83%(2018. 5월)

〈그림 Ⅱ-16〉 주요 투자은행의 한국 기준금리 전망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 해외 IB(Barclays, Citi, Goldman Sachs, HSBC, JPMorgan, Morgan Stanley, USB) 평균

o 올 6월 美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스프레드가 0.25%p에서 0.50%p로 확대되며 시장금리에 대한 상승압력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

o 통화당국이 국내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시장금리 안정세는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중 미국의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단행되면 한국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상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도 빠르게 상승하게 될 전망

□ 원/달러 환율: 2017년 1,130원/달러 → 2018년 1,087원/달러

o 2018년 1/4분기 중 원화대비 1,090원 수준까지 올랐던 달러화는 2/4분기까지 강세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1,075원대에서 등락

o 美 연방준비은행(Fed)이 6월 중 연방기금금리 유도 목표를 1.75~2.00%로 인상하였고 향후 금리인상 속도를 당초 예상보다 가속화할 것을 시사함에 따라 달러화

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가속화는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요인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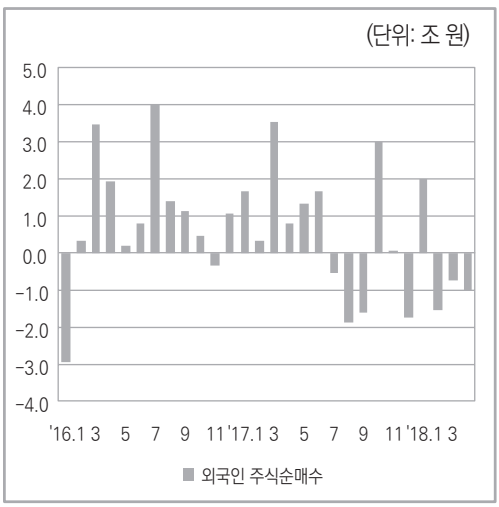
 * 중국, EU 소속국 등 주요국들과의 무역갈등 심화 및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 미국의 대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약달러 선호 정책 기조
 * 환율 상승시 유보되어 있던 달러 매도물량이 외환시장에 대량 공급될 가능성

-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의식한 정책 당국의 원화 약세 경계감과 북미회담의 장기화 가능성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그림 II-17〉 원/달러, 달러 인덱스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그림 II-18〉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료: 한국은행

〈표 II-6〉 201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8	2.8	3.3	3.1	2.9	2.7	2.8
민간소비	2.5	2.1	2.8	2.6	3.0	2.5	2.7
건설투자	10.7	9.4	5.0	7.5	1.4	-1.5	-0.1
설비투자	-2.3	15.9	11.0	14.6	5.0	1.0	3.0
지식생산물투자	2.3	2.6	3.4	3.1	3.7	3.3	3.5
수출(재화+서비스)	2.1	1.9	2.1	2.0	2.0	1.9	1.9
수입(재화+서비스)	4.5	8.2	6.2	7.2	6.9	7.1	7.0
소비자물가	1.0	2.0	1.9	1.9	1.6	1.8	1.7
생산자물가	-1.8	3.8	3.0	3.4	3.7	3.6	3.6
경상수지(억 달러)	992.4	356.5	407.9	784.6	330.0	360.5	690.5
상품수지(억 달러)	1,189.0	568.7	630.2	1,198.9	550.0	610.0	1,160.0
수출(억 달러, BOP기준)	5,119.5	2,824.3	2,949.5	5,773.8	3,035.9	3,235.5	6,270.4
증가율, %	-5.7	14.6	11.3	12.8	7.5	1.9	4.6
수입(억 달러, BOP기준)	3,930.5	2,255.6	2,319.3	4,574.9	2,436.0	2,654.5	4,906.5
증가율, %	-6.6	23.25	10.6	16.4	8.0	6.5	7.2
서비스수지	-177.4	-154.1	-190.6	-344.7	-175.0	-165.0	-375.0
환율(원/달러, 평균)	1,160.1	1,141.4	1,119.5	1,130.5	1,074	1,100	1,087
회사채수익률(3yrs, AA-)	1.9	2.2	2.5	2.3	2.8	3.0	2.9
실업률(%)	3.7	4.1	3.4	3.7	4.1	4.0	4.0
취업자증감(천 명)	299	364	270	316	230	210	220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판 1쇄 인쇄 / 2018년 6월 27일
1판 1쇄 발행 / 2018년 6월 29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0732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대표) 3771-00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8

ISSN 1229-5396 7,000원

ISSN 1229-5396

값 7,000원

keri 한국경제연구원
073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 : (대표)3771-0001 팩스 : 785-0270

www.keri.org